

보도자료

2023년 12월 7일(목) 인천 2023-58호

이 자료는 12월 8일(금) 조간부터
취급하여 주십시오.
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 12월 7일(목)
배포시부터 취급가능

제 목 : 인천지역 화폐수급의 특징 및 시사점

- 인천지역 화폐수급의 **주요 특징**은 ① 발행 및 환수 규모의 축소, ② 환수율 상승 추세, ③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과 주화의 높은 환수율이 있음
 - 인천지역 화폐 발행·환수 규모 축소는 **거래적 목적의 화폐수요 감소,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추세 확대**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
 - **환수율**은 20년을 저점으로 **상승세**를 보이고 있으며, 21년 이후 환수액 증가에는 **기준금리 인상**에 따른 **경제주체의 저축 유인 상승**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
 - **5만원권 환수율**은 **기조적**으로 여타 권종에 비해 **낮았으나, 주화 환수율**은 200%를 상회하는 등 **높은 수준**을 유지하고 있음
-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경제주체의 현금사용행태 변화,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**권·화종별 화폐수급 특징**을 **반영**하여 발행준비자금을 준비하는 등 **화폐수급 업무의 효율성**을 **제고**하고자 함

■ 자세한 내용은 “붙임” 참조

문의처 : 인천본부 업무팀 과장 이은경, 팀장 장근호

Tel : 032) 880-0053, 51 Fax : 032) 880-0119 E-mail : bokibcr@bok.or.kr

“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보도자료는 홈페이지(<http://www.bok.or.kr>>지역본부>인천본부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인천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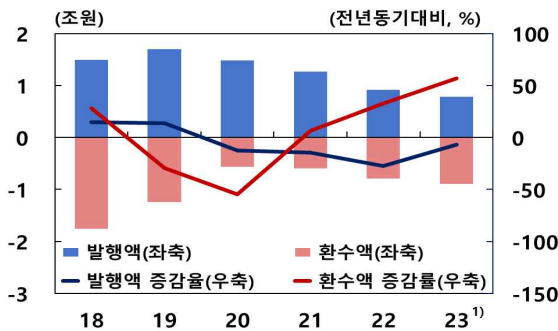
(붙임)

인천지역 화폐수급의 특징 및 시사점

I 인천지역 화폐수급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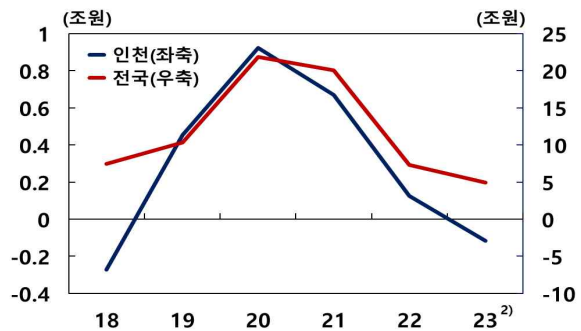
- 인천지역 화폐 발행액과 환수액은 코로나19 이전인 18~19년에 비해 이후 (20~23년) 축소된 모습
 - 발행액은 18~19년 평균 1조 5,925억원에서 20~23년* 평균 1조 1,258억원으로, 환수액은 1조 5,011억원에서 7,345억원으로 규모가 축소
 - * 23년은 1~10월까지의 증가율을 적용한 연환산 금액
- 20년 이후 화폐 발행액과 환수액의 증감 추이는 다소 상이
 - 발행액은 20년에 감소로 전환한 후 22년까지 감소폭이 커졌으며 23년에도 감소가 이어짐
 - 환수액은 이와 달리 20년에 전년에 비해 감소폭이 커졌으나 21년부터 증가로 돌아선 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
- 이에 따라 인천지역의 화폐 순발행액은 20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
 - 전국의 경우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인천의 경우 낙폭이 더 가파른 모습
 - 한편,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 또한 21년 이후 상승하며 23년 현재 100%를 초과한 상태(제2장 제2절 후술)

인천지역 화폐 발행 및 환수액 추이



주: 1) 2023년은 1~10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 발권통계

인천 및 전국의 순발행액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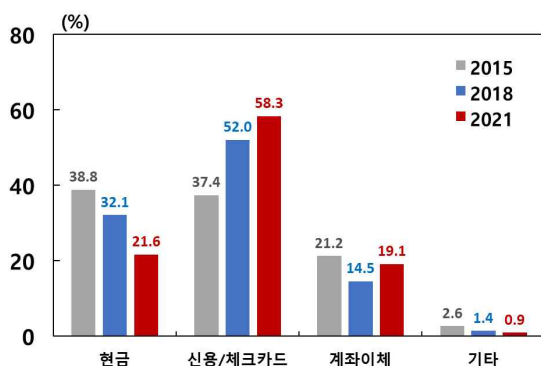
주: 1) 기간 중 (발행액-환수액)으로 음수는 순 환수액을 의미
2) 2023년은 1~10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 발권통계

II 인천지역 화폐수급의 주요 특징

1 발행 및 환수 규모의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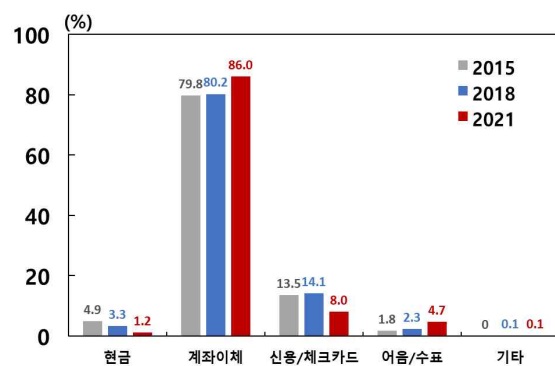
- 인천지역의 화폐 발행 및 환수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규모가 크게 축소
 - 화폐발행액은 코로나19 이후(20~23년(연환산) 평균) 규모가 이전(18~19년 평균)의 71.1% 수준이며 화폐환수액은 53.3% 수준
- 화폐 수급이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데는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거래적 목적의 화폐수요가 감소한 점이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
 - 전국과 인천의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18~19년 2.6%, 3.1%에서 20~22년(인천은 20~21년) 0.9%, -0.2%로 하락
-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전부터 진행되던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추세가 확대되면서 현금 사용 감소요인으로 작용
 -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 모두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*
 - * 가계: 2015년 38.8% → 2018년 32.1% → 2021년 21.6%
 - 기업: 2015년 4.9% → 2018년 3.3% → 2021년 1.2%
- 이에 따라, 가계의 최근 1년간 월평균 현금지출액도 18년 64만원에서 21년에 51만원으로 감소하였고, 기업도 같은 기간 2,906만원에서 912만원으로 감소

가계의 지급수단별 지출액 비중



자료: 한국은행 보도자료(2022.6월)

기업의 지급수단별 지출액 비중



자료: 한국은행 보도자료(2022.6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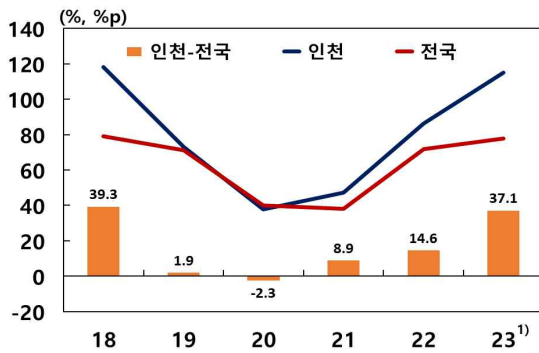
2 환수율 상승 추세

- 인천지역의 환수율은 20년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, 18~23년* 중 19년, 20년을 제외하고 전국보다 높은 수준

* 2023년은 1~10월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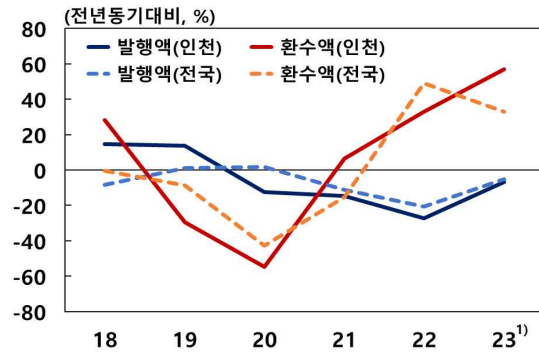
- 발행액 증감률이 20년 이후 음(-)의 값을 지속한 반면, 환수액 증감률이 21년 이후 양(+)의 값을 나타내면서 환수율이 증가 추세를 이어감
- 20년 이후 인천지역의 발행액 및 환수액 증감률은 전국과 비슷한 추이를 보임

환수율 추이



주: 1) 2023년은 1~10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 발권통계

발행액과 환수액의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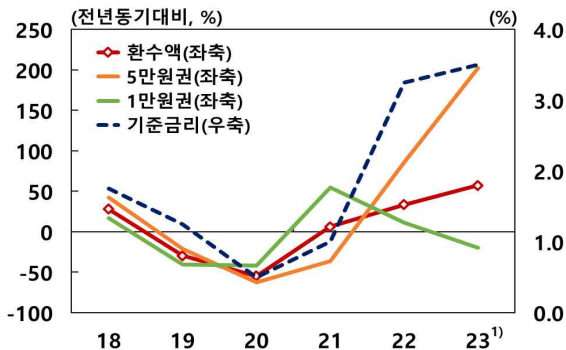


주: 1) 2023년은 1~10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 발권통계

- 21년 이후 환수액 증가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주체의 저축 유인상승 등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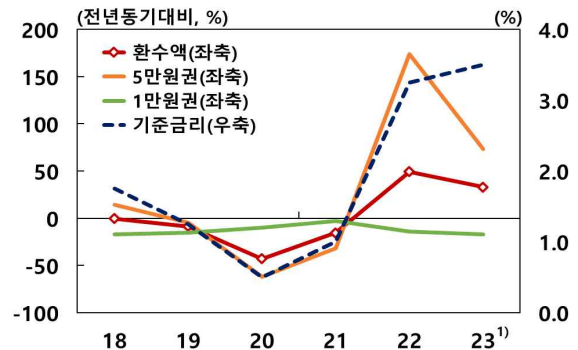
- 기준금리와 환수액 증감률의 움직임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인천지역은 특히 5만원권의 증감이 기준금리와 더욱 동조화된 모습

인천지역의 환수액 증감률 및 기준금리



주: 1) 2023년은 1~10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 발권통계, 한국은행

전국의 환수액 증감률 및 기준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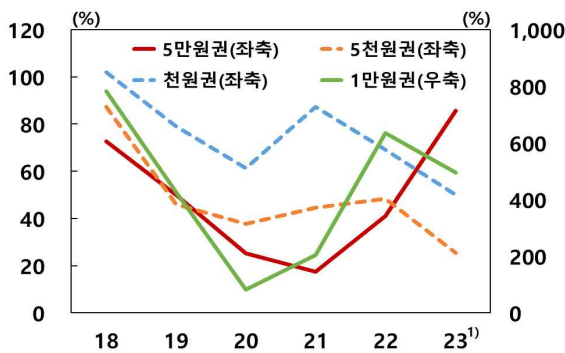


주: 1) 2023년은 1~10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 발권통계, 한국은행

3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과 주화의 높은 환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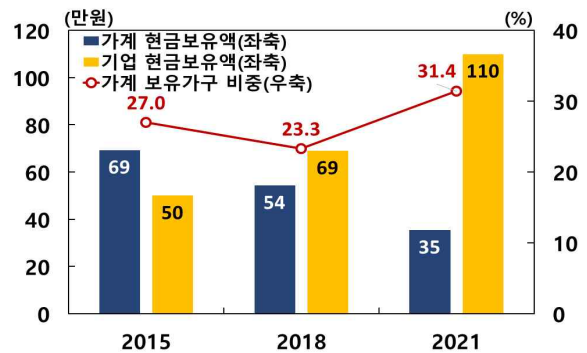
- 인천지역의 5만원 환수율은 기초적으로 여타 권종에 비해 낮았으며 코로나19의 여파가 컸던 20~21년에는 더욱 낮은 모습을 보임
 - 여타 권종에 비해 유통수명 도래 기간이 많이 남았으며 1만원권을 대체하는 고액권으로서의 수요가 상존
 - 코로나19 기간 중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예비적 수요도 일부 작용
 - 반면 1만원권은 유통수명 도래 등으로 환수율이 20년을 제외하고는 200%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냄

인천지역의 권종별 은행권 환수율



주: 1) 2023년은 1~10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 발권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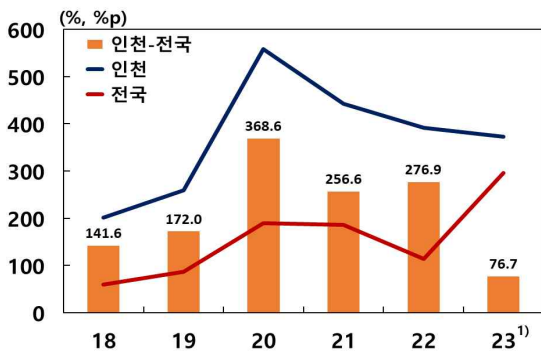
가계, 기업의 예비용 현금보유규모



자료: 한국은행 보도자료(2022.6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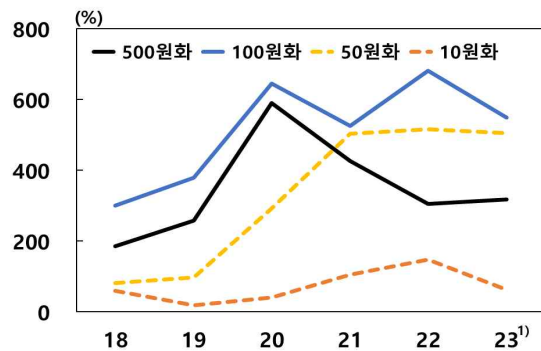
- 주화 환수율은 소액결제 필요성, 거스름돈 사용 감소 추세로 기초적으로 200%를 상회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상승
 -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진 등으로 퇴장주화를 재사용하면서 환수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

주화 환수율 추이



주: 1) 2023년은 1~10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 발권통계, 한국은행

인천지역의 화종별 주화 환수율



주: 1) 2023년은 1~10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 발권통계, 한국은행

III 시사점

- 비대면거래 활성화, 현금없는 사회 이행 등으로 향후 화폐 발행, 환수 규모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움
 - 코로나19 이후 실물경기 부진으로 축소되었던 거래적 화폐수요는 이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될 경우 크게 확대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
 - 다만, 화폐수명 도래, 주화 비사용 경향 등으로 인해 환수는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
-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경제주체의 현금사용행태 변화,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권·화종별 화폐수급 특징을 반영하여 발행준비자금을 준비하는 등 화폐수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 - 권·화종별로 발행, 환수 추이가 차이를 보이므로 각각의 추세, 경제여건 등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하여 발행자금을 준비
 - 고액권 및 예비적 목적으로서의 수요가 지속되는 5만원권과 이와 대체관계에 있으며 유통수명 도래로 환수효과가 이어지는 1만원권의 특징을 고려하여 은행권 발행준비자금을 관리
 - 특히, 환수초과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주화의 수납·보관 관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